

“하남산단 화학물질 오염도 심각”

광주 광산구 주민 70%

광주 광산구 주민 10명 중 7명은 하남산단지의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환경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남산단 노동자 10명 중 7명은 화학물질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 절반이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교육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광산구 주민·하남산단 노동자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338명 중 71.9%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하남산단 주변 장덕·하남·혹석·수완동 주민 76.7%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이외 광산구 주민(69.7%)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환경영향은 대기오염, 건강보건, 수질오염 순으로 우려했다.

응답자 69.5%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의 경우 80%가 해당 시스템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50.3%는 미디어(신문·TV 등)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인식했으며, 정부·관련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3%에 불과했다.

“주체별 유해화학물질 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산업체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앙정부(36.9%), 개인(36.7%), 광역시(36.6%), 자치구(34%), 시민단체(26.9%)가 뒤를 이었다.

하남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 12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77.5%가 작업 중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답했다.

특히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노동자의 83.3%와 단순노무직의 90.9%가 ‘영향이 많다’고 응답해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가스(부탄·이산화탄소 등) 40%, 유기용제(톨루엔·신나·솔벤트류) 24.2%, 금속류(납·카드뮴·수은 등)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5.8%는 화학물질 관련 교육이수를 지난 1년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간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

“산단 노동자 절반 화학물질 노출 대처법 몰라”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 도입·교육 강화 시급

는 정규직(69.1%)보다 단순노무직(90%), 3년 미만 노동자(88.1%), 비정규직(85%)의 비율이 높았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정보 역시 74.2%가 모르고 있었으며, 작업 중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도 전체 응답자의 51.7%가 모르고 있었다.

“광주시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30.8%), 인식 개선과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27.5%), 전담기관 운영(13.3%) 순으로 나타났다.

또 내 집 주변 유해화학물질 배출 정보 제공에 75.5%가 찬성하고 유해화학물질 제품 정보 제공에도 88.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환경연합은 “불안정한 노동구조 체계는 유해화학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도 대처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광산구 주민과 하남산단

노동자 대다수가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오염과 건강상 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 도입과 안전 교육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광산구 주민 338명(하남산단 주변 포함),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환경연합은 하남산단 남영전구의 수은누출,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홀 사례가 잇따른 점을 토대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의해 이 같은 인식 조사를 벌였다.

임형택 기자



요우커, 다시 돌아오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날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지 약 9개월만에 단체관광을 일부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장애인 폭행 혐의 복지시설 원장 등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원장과 직원(전직)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 A(5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복지시설 전 직원 B(3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2일 지역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실에서 입소자 C(57·여·정신장애 3급) 씨가 시

설에서 나가고 싶단 병원에 보내달라고 한 데 대해 격분 다른 입소자들을 불러 C 씨를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3월과 같은 복지시설 입소자 D(21· 지적장애·2급) 씨의 방 안에서 D 씨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D 씨의 배와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입소자 E(19· 지적장애 1급) 씨가 시설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복사용지를 맞아 E 씨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나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폭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각 폭행의 횟수와 방법·정도, 합의 사실,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춘정 기자



지적장애인 상대 사기친 50대 검찰 송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지적장애인의 생활비와 예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50)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4월1일부터 올해 7월30일까지 지적장애 3급인 A(36·여)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민기된 예금·월급 등 56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했던 A씨에게 접근, 이혼을 부추긴 뒤 1년여간 동거해오며 “통장과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A씨에게 “기초수급자가 통장에 돈을 많이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속여 A씨의 민기(4년)된 적금과 월급을 조카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A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기초생활수급비와 생계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A씨가 폐지를 쫓거나 공장 등지에서 일하며 모아둔 전 재산을 가로챈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8월 비빔을 피운 정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통장 잔고를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사기 행각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고소 직후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부정수급을 했다”며 광산구청에 신고했으며 동거를 마친 뒤에도 A씨의 카드를 이용, 마음대로 돈을 인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임형택 기자

여수 돌산 해상서 여객선과 충돌한 어선 침몰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앞 해상에서 2일 오전 7시 48분께 60t급 여객선 H 호(67t·승선원 140명)와 연안 통발 어선(2.96t)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부부 문 모(71) 씨와 장모(62·여) 씨가 바다로 추락했으나 해경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어선은 충돌 충격으로 침몰했다.

구조된 선장 문 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문 씨 아내의 생명이 위독해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136명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여객선 H 호가 급모도로 향하는 중 어선 M 호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기적을 울리며 진로 변경을 했으나 M 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순천시 발두령 태우던 70대 숨진 채 발견

1일 오후 7시56분께 순천시 별량면 발두령에서 A(78)씨가 불에 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순천시내에 거주하는 A씨는 발 입구에 자가용을 세워둔 채 오후 1시께부터 발두령을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을 태우다 매게한 연기에 질식사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고교 교사 영장

합평경찰서는 1일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A(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하룻길에 차량 안 등지에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직위 해제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하는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평=김광춘 기자

질풍이 낀 교실 행복한 학교

독서마라톤

빛고을 제12회

2017. 4. 7 (금) - 11. 7 (화)

문화 도시 광주는 지금 행복한 독서 중!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광주 시민

구간 거북이 / 악어 / 토끼 / 타조 / 사자 / 호랑이 / 월계관

신청 <http://bookmarathon.gen.go.kr/>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